

뉴스홈 | 최신기사

"노인요양보험은 저소득층만을 위한 것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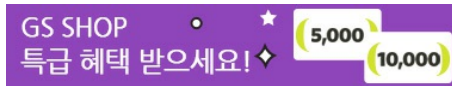
송고시간 | 2008-08-05 11:00



"노인요양보험은 저소득층만을 위한 것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우리 국민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취지에 대해 동의하고 있지만 저소득층만을 위한 제도로 인식하는 등 오해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요양보험) 시행 직전인 6월 중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요양보험 국민인식도에 대해 집단별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요양보험에 대해 '본인 및 본인의 부모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65세 이상 노인' '중증 노인 수발가족' '일반 노인 부양가족' '45-60세 청장년층' '30-44세 청장년층' 등 7개 집단에 대해 심층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모든 집단에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은 반면 중증 노인 수발가족을 제외한 전 집단이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거나 매우 낮았으며 노인을 수발·부양하는 가족 집단을 제외하고는 이 제도를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실제 수혜대상인 65세 이상 노인들은 이번 조사 대상 가운데 요양보험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낮아 홍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노인들과 청장년층 집단은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설을 이용할 의향이 높은 반면 노인 수발가족들은 시설을 선호하면서도 사회적 비난을 의식해 이용을 주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노인 부양가족도 시설의 질에 대한 불신으로 이용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노인들은 대체로 가족과 동거하면서 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해 요양보험 서비스의 요건으로 가족과 친밀도를 꼽았지만 청장년층은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우선시했으며 부양가족은 서비스 자체의 내용과 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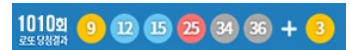
서비스 내용 확대가 필요한 부분으로는 노인과 부양가족은 '재활치료'를, 청장년층은 가족들의 일상생활에 제약이 없도록 '외출 서비스'나 '주간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대상자를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의 직접 수혜자들은 반대가 우세했으나 청장년층은 지지하는 쪽이 많았다.

건보공단은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한 동의가 매우 높게 나왔다"며 "갇 출범한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려면 사회집단별 인식차를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r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핫뉴스 →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한국 유튜브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
다 귀환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
등 징계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1심 실...

'가짜 여성계정 운영 의혹' 소개팅앱 내부고발...권익...

박찬욱, 칸 초청에 "기쁜 볼스식...오래 기립박수 칠...

반려견도 육식보다는 채식이 더 건강하고 덜 위험해



가족찾기 사연 보러가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 발 묶인채 두 눈만 열뚝뚝...누가 학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 수송헬기 정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
링크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흔들림 없이 손잡고 한팀"

모임·영업·행사 제한 등 거리두기 완전 해제...마스크는 '유자'

검수완박에 청문정국 '한동훈 블랙홀'까지...여야 골장대치 예고

1년5개월 만에 전국 평감사회의...'검수완박 대응' 논의

기준금리 1.25→1.50% 또 인상...4%대 인플레이션 '불 끄기'

댓글 많은 뉴스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찰에 고발
123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
58

3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48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동재개 예열?
38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힐 예정"
31

뭐하고 놀까? **#홍**→

유튜브 채널



SNS



뉴스홀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타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데미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뉴스+ 이슈동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عربي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IR 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지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기세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을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 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 성기홍 [편집인] 조채희
Yonhapnews